

한국과 미국의 여대생의 의복 행동 비교 연구

임성경·한명숙

상명대학교 의류학과

1. 서론

의복이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그 사회의 변화를 조절하는 집합적 요소로서, 그 시대의 사상이나 행위 및 관습 등 인간 행동의 변천과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반영해 주는 가장 가시적인 도구이다.

의복은 자신의 문화는 물론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므로, 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의복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는 것이다. 문화의 다양성으로 각각의 문화는 다양한 의복 스타일을 갖게 되었다.

글로벌 시대인 오늘날 자기 나라의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문화도 함께 비교함으로써 세계화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각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여대생들이 그 나라의 유행 문화를 창조해나간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의복의 유행은 젊은 여성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서양 문화의 대표인 미국과 한국 여대생들의 복식행동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문화권에 따른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 문화권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으며, 문화권에 따라 의복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은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여대생과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여대생으로 정하였다.

자료는 2002년~2003년 동일한 시기에 한국과 미국에서 사진촬영을 통해서 수집하였다. 사진 촬영은 미국의 경우 뉴욕 맨하탄에 있는 FIT, NYU, PRATT의 다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한국의 경우는 이대 앞과 신촌 지역에 있는 학교 주위에서 실시 됐는데, 총 400명의 촬영 사진 중 각각 80명 씩 총 160명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미국과 한국 여대생들을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복식을 스타일, 색상, 액세서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물 비교 연구하였다.

3. 이론적 배경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개인의 의복 형태를 비교 연구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

에 이에 따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문화에 따른 의복의 차이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hen(1979)은 동조성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의복과 관련시켜 미국과 중국 여대생들을 비교한 연구에서 중국 여대생들이 미국 여대생들보다 의복동조성이 높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개인적이고 개방된 서구사회와 폐쇄된 중국사회 간의 차이에 따른 의복의 상이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강경자(1984)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한국과 미국의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양국의 여대생의 욕구가 의복선택행동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비교연구한 결과, 한국 여대생이 미국 여대생보다 욕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McGulloung(1977)은 의복 착용 동기에 있어, 미국 여성은 의복을 성적 매력 향상의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하였고, 김경희, 임숙자(1983)는 예의성이 한국 여성들의 의복 착용 동기라고 주장하였다. 또 이선재(1991)는 한국과 미국 대학생 및 교포 대학생간의 의복태도에 관한 비교 연구를 실시한 결과, 미국 대학생이나 교포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에 비해 의복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태도와 가치기준이 확고하며, 의복을 통해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났다고 한다. DeLong, Koh, Nelson, Ingvoldstad(1998)은 Jean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의미 인식 비교 연구에서 미국에서의 Jean은 전체에 걸쳐 입는 옷이었으나 한국에서의 Jean은 특별한 역할을 하는 계층, 즉 젊은이들을 대변하는 옷차림이다. 따라서 같은 Jean이라고 하더라도 문화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박우미(1999)는 신체만족도에 따른 선호의복스타일에 대한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비교 연구에서 각 문화에 따라 선호하는 의복스타일이 다르고 미국 여대생이 한국 여대생에 비해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서로 다른 미국과 한국 문화에서의 의복 행동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결과 및 결론

160명의 한국과 미국의 여대생들의 의복 형태의 분석 결과를 통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여대생들이 선호하는 의복은 7, 8부 바지와 슬리브리스 니트의 semi-formal한 형태와 폴로니얼 쇼트팬츠와 티셔츠 등의 캐주얼 의류로 주로 검은색 등의 무채색을 선호하였으며, 선글라스 착용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가방과 신발에 있어서도 주로 검은 색을 사용하였는데, 보퍼, 굽낮은 슬리퍼, 프라다 냅 섹과 데이 섹을 주로 이용하였다.

2. 미국 여대생들이 선호하는 의복은 슬리브리스 또는 어깨끈이 달린 티셔츠등의 노출이 심한 상의와, 스커트 보다는 바지를 선호하였는데, 8부 바지와 긴 바지가 많이 이용되었다. 특히 청바지의 사용은 미국 여대생들에 의해 절대적이었다. 선호하는 색상은 검정색등의 무채색과 강한 원색 계통이었다. 가방이나 신발은 검은색이 대부분이었는데, 큰 가방과 조리형 슬리퍼나, 앞이 트인 슬리퍼들이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착용되었다.

3. 한국과 미국의 여대생들의 의복 형태를 비교하여 보면, 한국 여대생들의 의복 형태는 캐주얼한 스타일 뿐만 아니라 semi-formal한 스타일의 두 가지 형태를 보이는데 비해, 미국의 여대생들은 캐주얼 스타일만 보여 주었다. 그러나, 미국의 여대생들은 한국의 여대생들보다 디자인이나 의복의 색상이나 배열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국 여대생들이 옷의 디테일들에 관심을 가지는 반면, 미국 여대생들의 경우는 심플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스

타일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을 보였다. 색상에 있어서는 두 지역의 여대생 모두 검은색의 무채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었으며, 한국의 여대생들보다는 미국의 여대생들이 강한 원색 계통이나 과감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았다. 신발이나 가방에 있어서는 두 나라 여대생들 모두 검정색을 선호하였으며, 미국 여대생들이 한국 여대생들보다 간편한 신발을 추구하였다. 귀금속 액세서리는 미국 여대생들이 더 많이 착용했으나, 한국 여대생들은 선글라스나 양산과 같은 액세서리를 즐기는 경향을 보였다.

4. 한국의 여대생들은 유행을 추구하기 위해 동조하는 경향이 강하며 정숙과 예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노출하지 않는 의복이나, 약간은 정장 느낌이 나는 스타일을 중시하였다. 한국의 정서가 그들의 의복에 그대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국 여대생들의 복식에서 청바지는 절대적인 항목이었으며, 이러한 청바지를 통해 획일성과 동조성을 가지면서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개성을 가지는 모습을 보였다. 자연스러운 신체의 노출이나, 색상을 이용한 강한 이미지는 편안함과 실용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미국인들의 정서를 그대로 잘 반영한 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경우는 서울의 신촌 일대에서만, 미국의 경우는 맨하탄 일부분에서만 행해졌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전체 한국과 미국의 여대생의 의복 형태를 완전하게 규정짓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며, 이 연구를 위한 조사는 또한 방학 기간에 행해졌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만이 조사 대상이므로 확대 해석하는데 주의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의복의 비교 문화 형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심리적인 상태에 관한 연구가 같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자 (1984). 여대생의 기본복구와 의복역할행동간의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권 4호. pp. 11-24.
- 김정원 (1994). *복식행동의 비교문화적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박사논문.
- 이명희 (1993). 한국과 미국 남녀 대학생의 의복이미지 선호도와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권 3호. pp. 367-379.
- 이선재 (1991). 한·미 대학생 및 교포 대학생간의 의복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권 2호. pp. 173-187.
- 징옥분 (1986). 한·미 양국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존감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권 2호. 123-136.
- DeLong, Marilyn, et al. (1998). Jeans: A comparison of perceptions of meaning in Korea and United Stat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16 No. 3. pp. 116-125.
- Hwang, Jin Sook (1998). *The effects of body image on clothing attitude, fashion innovativeness, and shopping in American female college students* Vol. 22 No. 8 pp. 1069-1078
- Kim, Minja (1982, March). Fashion Leadership: a two-culture stud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0 No. 3.
- McGullough, E.A., et al. (1977). Sexually Attractive Clothing: Attitudes and Usage. *H.E.R.J.* Vol. 6. pp. 165.
- Tate, Sharon Lee (1989). *Fashion Design*.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Inc.